

# 평생 역경 매진... 스님 족적 답아

운허스님의 크신 발자취 신용철 편저

한국 불교계의 숙원이던 고려대 장경의 한글 번역이 37년 만인 지난해에 완성됐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글대장경 완간회향 대회'에 모인 사부대중들은 하나같이 번역 작업의 첫 걸음을 내딛은 운허 스님(1891~1980)을 떠올렸다.



유점사로 출가한 스님은 이후 범어사, 개운사 강원을 거쳤으며, 1932년에는 봉선사에 불교강원을 설립하고 동화사, 해인사, 통도사 강원 등에서 강사생활을 했다. 이때 <화엄경>, <자비수참> 등 20여권의

1장 '운허 이학수의 생애와 사상'에서는 운허 이광수의 육촌 동생이기도 한 스님의 출생과 교육환경, 이시열로 개명된 뒤 만주에서 펼쳤던 항일 독립운동 모습을 담았다. 또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역경사업을 펼치고 광동학원을 설립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수행자로서의 모습 이외에 중생들과 함께 했던 일화들을 모은 2장 '운허스님의 큰 삶과 지혜의 향기'에서는 광동학원 교장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직접 삼각형수를 가르치는 모습과 광동학교 1회 졸업생에게 손수 써 준 졸업장 사진도 볼 수 있다.

3장 '운허스님의 글'에는 스님이 광동 교지에 기고한 글들과 '독립신문'에 실렸던 만주지역의 '한족신보', 주필로 쓴 사설 '임시정부 개조에 대하여' 등을 실었다. 4장 '운허스님의 저술'에서는 근대 불교사건의 호신대(불교사건)와 <화엄경해제>, <대반열반경해제> 등 스님의

경전을 번역 출판했다. 근대 불교사건의 호신대(불교사건)의 탄생 또한 운허 스님의 원력으로 가능했다. 입적 11년 후인 1991년에는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기도 했다.

의 저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다. 5장 '기리는 글'에는 월운 스님의 '장엄한 낙조', 문화생들의 추모글, 한글대장경 원간 회향법회 축하 등 기리는 글, 마지막 장인 6장에는 연보를 실었다. 값 8천원.

생애·사상, 항일운동·교육자 모습 조명  
저자가 직접 찍고 수집한 사진·자료도

<운허스님의 크신 발자취> (신용철 편저, 동국역경원)는 "한문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반대중에게 쉽게 전달해야 한다"며 평생 역경 사업에 힘쓴 운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엮은 책이다. 스님이 설립한 광동·고동 학교를 졸업한 신용철 교수(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장)가 2000년 다산문화회에서 발표했던 논문 '운허 이학수의 생애와 사상'에 스님의 연보와 <운허선사어문집>에 실린 글을 골라 엮었다.

교직생활을 하다 1921년 금강산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ia.com

## 저승-그곳 넘나드는 이야기 사나소 지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인간 생사에 관한 유별난 보고서'란 부제가 붙은 <저승-그곳 문지방 넘나드는 이야기> (사나소 지음, 이콘과실천)는 '죽음'에 관한 책이다. 하지만 지은이는 죽음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과 신화, 민담, 무속 속에 스며있는 죽음에 관한 소재들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죽음의 의미를 되새긴다. '죽음'은 단순히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일 뿐이며 누구나 그 경계



는 동서양의 각기 다른 시선, 유희와 영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4장과 5장에서는 죽음의 순간을 경험했다는 사람들과 소설 속 유별난 죽음을, 6장에서는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 신화·민담속 죽음 통래 의미 되새겨

선인 '문지방'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된다면 이승에서의 유행의 배회쯤은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지은이는 그동안 터부시 되어온 '죽음'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 벗어나 자연의 섭리로 이해하고자 말한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저승에 관한 이야기와 영혼을 바라보

이르는 장례문화를 살펴본다. 지은이 사나소는 32년 동안 중앙일보간지 기자와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던 언론인으로, 순수 한국 무속전문 '사나소서(살아나소서)'의 저자이다. 책에 실린 글들은 지은이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연재했던 것이다. 값 1만원.

## 세계의 공동체를 찾아 조연현 엮음



일상의 굴레를 훌훌 털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소망일 것이다. 그 휴식이 바로 일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과 몸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를며 깨달은 삶의 진리와 바뀌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간결하고 솔직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이 책에는 국내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스님의 '플럼블리지'를 비롯해 인도의 명상마을 '오로빌', 스리랑카의 '사르보다야', 무소유를 실천하는 일본 '토요사토' 등이 소개돼 있다.

플럼블리지를 찾은 환경운동가 김병수씨는 "10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를 평균 3분내지 5분에 걸려 걷는 걷기 명상을 통해 빨리 걸거나 뛰는 것도 모자라 동네 구멍가게에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

## 환경운동·생태탐험가들의 체험담

<세계 어디에도 내 집이 없다> (조연현 엮음, 한겨레신문사)는 황태권, 유정길 등 환경운동가와 생태탐험가 9명이 직접 세계의 대표적인 공동체에서 오랜 기간 머물며 얻은 체험담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미국, 스리랑카, 인도 등 전세계 8개 나라 13개 공동체 마을에 머

보게 됐다'고 고백한다. 책을 읽으면 꼭 한 번 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것 같은 독자들의 배려를 이미 눈치 챘기 때문일까, 미래의 탐방객들을 위해 각장마다 말미에 해당 공동체의 지도와 주소, 인터넷 사이트,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다. 값 9천5백원. 김주필 기자 jkim@buddhania.com

## "앙코르와트 불상 낮설지만 속에 담긴 뜻은 하나" 터득

앙코르 와트.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문화의 대표적 유적으로 12세기 중반 경에 건립된 바라문교 사원이지만 후대에는 불상이 모셔지기도 했다. 지금의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한 앙코르 왕국의 멸망과 더불어 쇠퇴한 앙코르 와트는 건물마다 신화와 전설을 간직



## 책과 삶

브랜드 나인 대표 심인보

## 여행 에세이 '앙코르 기행' 사진·짤막한 설명 곁들여

알지만 우리나라와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란 느낌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이국적이고 기이한 불상과 사찰의 모습이 낮설었지만 결국 불상은 그 지역 사람의 얼굴과 닮아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불상이든 사찰이든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 속에 담긴 뜻,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풀라한 캔을 마시기 위해 졸졸 따라다니며 사진모달이 되어주기도 하고, 별 소용도 닿지 않는 물건을 팔기 위해 부채질을 해주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느꼈던 슬픔은 곧 내적으로 인한 피폐한 삶 속에서도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캄보디아인들에 대해 애정으로 바뀌었다. 200여 장의 사진에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담고 사진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기도 짤막하게 곁들였다.

5년 전 지금의 아내에게 보냈던 그림엽서와 자신이 좋아하는 재즈음악 이야기를 모아 <지금 우리는 키스하러 간다>로 퍼냈던 그는 현재 미안마 등을 여행하고 책으로 엮어보자는 제안을 받은 상태다. <앙코르기행>은 개인적인 감상을 담은 책이기에 아쉬움도 남습니다. 다음 책은 좀 더 많은 준비를 한 뒤 신중히 내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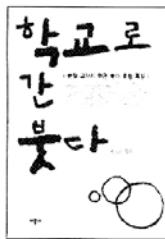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관심	빅 상 무	한
3	달라이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라마	침아출판사
4	산중에서 길을 잃었더니	서 화 통	은행나무
5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류 시 화	김 영 사
6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통	솔 바 람
7	영가천도	우 흥 호	림
8	달라이라마와 도울의 만남	김 용 옥	통 나 무
9	틱낫한의 평화로움	틱 낫 한	열 림 원
10	꽃은 저도 향기는 그대로일세	명 정 정	예 문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 학교로 간 붓다 최시선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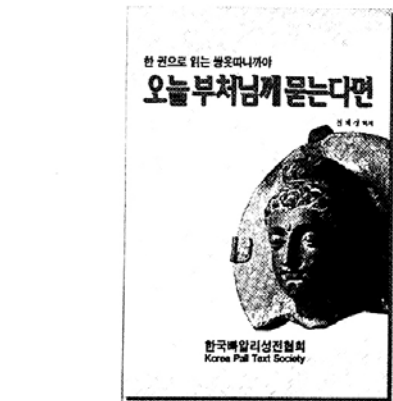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 잘난 척해서 왕따 당하는 아이, 가출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시나요? <학교로 간 붓다> (최시선 지음, 시공사의 배경)은 '학교'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곳에서 붓다는 아이들 생활의 구석구석을 살펴며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한다. 가령 가출을 하려다도 가출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산에도 올라 보고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주위를 보는 시선을 기르라고 말한다. 또 인터넷 서핑을 해도 그냥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필요한 정보도 얻고 재미를 찾아보라고 제안한다. 너무나 사소하게 보이는 이런 변화가 어쩌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관심과 조연이며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나아가게 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값 8천5백원.

##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남전 잡야함경, 쌍웃따니까야를 아십니까?

## 오늘날 인문사회과학에서 중요한 테마가 되는 화두에 대해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 답변하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역사적인 부처님의 원음(原音) 가르침  
한권으로 읽는 쌍웃따니까야

##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 <주요목차 소개>
- ▲ 삶이 덧없고 죽음은 짧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 깨달은 이는 특별한 말을 사용한다. 일상용어를 사용한다
  - ▲ 두려움은 어디서 온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 ▲ 사회적인 부와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 ▲ 말이 태어나면 실망해야 할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 ▲ 권력에 도취한 삶과 바른 인간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
  - ▲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길인가
  - ▲ 수행을 단념한 성격 차이가 장애일 수 있을까
  - ▲ 지옥으로 이끌지 않는 천국은 있을까 없을까
  - ▲ 깨달음을 이룬 뒤 말씀하시길 주저한 까닭은 무엇일까
  - ▲ 종교가 달라 적대감이 일어난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 무례한 말로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 신과의 합일을 원하는 종교와 불교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 ▲ 스승과 제자는 서로의 육박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 ▲ 탐욕과 미움을 어디서 일어날까
  - ▲ 학자를 목욕으로 다스리는 정치는 옳은 길일까
  - ▲ 왜 존재를 뛰어넘어서 천인을 물어야 할까
  - ▲ 불교적 인과연립인 연기의 일반법칙이란 어떠한 것일까
  - ▲ 어떻게 생노병사의 세계를 소멸시킬 수 있을까
  - ▲ 이 세상은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하는가
  - ▲ 연기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 ▲ 올바른 수행자가 되려면 무엇을 두루 알아야 할까
  - ▲ 세계에 대한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 ▲ 무지한 자가 깨달은 자라고 자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 깨닫기 전에 부처님의 공경적인 의문은 무엇이었을까
  - ▲ 바다보다 많이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 ▲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 ▲ 타인을 방문할 때 상대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해야 할까
  - ▲ 해탈한 수행승에게도 이득과 환대의 명성이 존재할까
  - ▲ 수행자가 여인을 방문할 때 물가값을 어떻게 취해야 할까
  - ▲ 나와 내 것이라는 교만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 ▲ 길잡이 든 수행자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나
  - ▲ 홀로 떨어져 수행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일까
  - ▲ 맑은 병들어도 어떻게 하면 마음은 병들지 않을까
  - ▲ 누가 묻는다면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다고 해야 할까
  - ▲ 시간의 약마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 ▲ 삶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 ▲ 끊임없는 추원과 해아림은 어디에서 올까
  - ▲ 수행자들이 말문을 부리며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 ▲ 제자의 죽을 앞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 ▲ 이 시대를 진지하게 성찰할 때 악마란 무엇일까

- ▲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들더라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 ▲ 일체의 세계란 무엇이며 경험 밖의 것을 말할 수 있을까
- ▲ 수행자는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 ▲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에서 유효한 까닭은 무엇일까
- ▲ 부처님께서 새내기 수행승에게 명문장어 어떻게 하셨을까
- ▲ 사물이 감각되고 인식될 때 나는 그 가운데 있을까
- ▲ 배다(大略)에 정통한 자의 참다운 뜻은 무엇일까
- ▲ 귀부인의 오만한 초대에 수행승은 어떻게 응했을까
- ▲ 거센 파도와 소용돌이가 있는 인간의 바다란 무엇일까
- ▲ 주권과 객관 그리고 욕망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
- ▲ 부처님께서 괴난하셨을 때 어떻게 법문을 하셨을까
- ▲ 어떻게 우리가 신들의 빛줄과 악마의 빛줄에 묶일까
- ▲ 여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 ▲ 여성이 지닌 힘 가운데 가장 위대한 힘은 무엇일까
- ▲ 일반이란 어떠한 것이고 그것을 실현할 방법은 있는가
- ▲ 재가생활에서도 타락된 악과 불을 성취할 수 있을까
- ▲ 직을 죽이는 성스러운 전쟁은 정당할 것일까
- ▲ 단지 하늘나라에 태어나길 기원하는 제사는 옳은 일일까
- ▲ 수행자가 보석과 광물을 수행해도 좋은가
- ▲ 속멸적인 업의 이론에서 윤리가 나올 수 있을까
- ▲ 율에 대해 이론의 스승과 부처님이 어떻게 달리 말할까
- ▲ 고통만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 ▲ 불사(不死)의 참뜻과 그 불사에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 ▲ 팔정도, 팔정도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 ▲ 모든 수행의 근본은 어디에 있고 그것은 무엇을 지향할까
- ▲ 부처님께서 자신의 병드셨을 때 어떻게 치유하셨을까
- ▲ 광선은 절대적인가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가
- ▲ 나는 우월하다는 자만이외에 또 다른 자란 무엇인가
- ▲ 세속적인 유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 ▲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는 하나의 길은 무엇일까
- ▲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최후의 유희는 무엇이었을까
- ▲ 보리수하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은 연기법만일까
- ▲ 부처님께서 자신의 늙음을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 ▲ 신봉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 목표는 무엇일까
- ▲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을까
- ▲ 몸이 병이 들었을 때 마음을 다잡는 방법은 무엇일까
- ▲ 부처님께서 호로 깨달은 때 무엇을 하셨을까
- ▲ 세속적인 재가의 신자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 ▲ 숲 마시는 불자에게도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을까
- ▲ 부처님을 따르는 재가의 신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 지혜로운 재가신도가 배우는 법문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 ▲ 위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초진법문의 내용은 무엇일까

- ▲ 괴로움을 보는 자는 괴로움의 소멸도 보는가
  - ▲ 어머니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연상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생명을 죽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종자와 초목을 훼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 호화로운 침대에서 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저울을 속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폭행을 일삼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신국판 / 496쪽 / 값 18,000원

<백아리성전협회에서 나온 책들>  
 쌍웃따니까야 전집(전12권) 300,000원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9,000원  
 시간 맞지마니까야 제1권 값 30,000원  
 범어문법학  
 백아리사전

※ 이 책은 불서출판 윤주사(02-3672-7184)나 역시아문, 교보문고를 비롯한 주요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 주문도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살아있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국백아리성전협회**  
 Korea Pali Text Society  
 전화 02-2631-1381 팩스 02-2631-3770 kptsoc@kptsoc.org